



방송통신위원회

보도자료

2015년 10월 8일(목) 배포시점 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년의 혁신,
30년의 성장

문의 : 기획조정실 창조기획담당관 최성호 과장(☎2110-1320)
창조기획담당관 엄정환 사무관(☎2110-1383)

제공일: 2015. 10. 8.(목)

방통위, 여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

-방송통신 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와 한국여성벤처협회(회장 이영)는 10월 8일(금) 오후 2시 여성 벤처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'만나고 싶었습니다' 행사를 개최하였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, (주)와우몰 김양미 대표 등 여성 벤처기업 10개사가 참석하여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선 및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.

참석자들은 특히 ▲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매체 확대 ▲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차등 적용 ▲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편성 다양성 확대 ▲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.

최성준 위원장은 “여성 벤처기업이 활성화 되면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, 여성 경력단절,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”면서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한국여성벤처협회는 2009년부터 여성 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위하여 '만나고 싶었습니다'라는 이름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정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. 끝.